

인천사태 여성 관련자 접견록

일시: 1986.7.10.

장소: 인천소년교도소

1. 인천사태시 부천서를 거쳐간 여성관련자

인천사태 (5.3 사태) 때에 시위등 관련 혐의로 부천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송치되었던 여성으로서 송민정, 문미숙, 전미영, 김희란, 채경규 등 5명이었다. 그 가운데 송민정, 문미숙은 인천대 재학생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미영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며 김희란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함.

인천소년교도소에 채감중인 송민정, 문미숙을 접견하면서 그 당시 남녀를 불문하고 부천서를 거쳐간 피의자들은 폭행, 폭언등 여러가지 형태의 가혹행위가 가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2. 송민정

(1) 인천사태 당시 인천대 생물학과 2학년 재학중으로서 인천대 학보사 기자로 취재차 현장에 갔다가 검거되어 부천서로 연행됨

(2) 정보과로 먼저 갔다가 나중에 수사계로 갔는데 수사계 방에서 수사계장인듯한 사람 (뚱뚱하고 배가 많이 나온 40대 후반의 중키 남자,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음) 이 송양을 끌고 들어간 상태에서 "저년 생식기를 없애 버려라" "애기를 못나게 만들

辯護士 朴元淳

(4) 또한 수갑을 가져와 뒤로 높이 배기게 하고 어깨를 눌러 더욱

고통을 주기도 하였음. 담배를 들고 들어와 "담배를 못핀다"

타고 하니 높이 놓고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담배불로 얼굴을

지길듯이 똑바로 말하라고 하다가 다시 양콧구멍에 불붙인

담배를 끼우고 입을 틀어막아 코로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였음

세차례 정도 입의 양쪽에도 담배를 끼우는 등의 행위를 함

(5) 또 다시 "안되겠구나" 하면서 나가 다른 형사를 들어 보내

높히 놓고 따귀를 양손으로 때리면서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

"시집도 못가게 만들겠다" "안되겠다, 벗겨야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당시 그 방에는 장판 깔린 방인데다가 이불까지 깔려

있고 형사(뒤에 들어온 형사는 스코츠 머리, 중키, 35세 정도,

배가 좀 나오고 안경은 끼지 않은 사람) 와 단둘이 있어 울던

이면서 "똑바로 말하세요" 하면서 모든 얘기를 했음

(6) 나중에 검찰에서 경찰에서 당한 고문 사실을 얘기했고 시인했던

사실도 반복하였음

이 상

접견자 : 김상철, 박원순

이타 "는등의 욕설과 모욕을 가하였음

(3) 머리를 끌어 잡고 형사 숙직실 같은 방으로 담당형사와 단둘이 들어가 발로 걸어차이고 따귀 맞고 곤봉으로 수없이 구타당함
화염병 던지고 시위 가담사실 시인하라고 하여 합수없이 시인함

(4) 송양이 비교적 덜 폭행당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지나치게 순진하여 보이고 당시 많은 집단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함

3. 문 미속

(1) 송양과 같이 정보과에 있을 때는 맞지 않았는데 나중에 따로 강당 같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렸고 때리면서 "때리는 것이 법이다" 라고 하였음

(2) 수자과에 데려가서 처음 들어가자 말자 엎드리게 하고 워카발로 등에 사정없이 차서 멍이 들게 하였고 어느 형사에게 배당 되면서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발로 걸어차고 구타

(3) 그 형사는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자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거진 자술서를 썼더니 "안경 벗고 들어오라" 고 하여 수사과 옆 방으로 들어가게 됨. 이곳에서 "화염병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똑바로 말하라" 라고 하면서 처음엔 그냥 마구 때리다가 나중에는 곤봉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밟는등 고문함. 이때 가슴 부분을 건이 차기도 하였음